‘도쿄올림픽 출격’ 한국 선수단 결단식

▲ 사진=대한체육회

2020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을 치르고 선전을 다짐했다.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다. 이날 결단식은 참석자 규모를 축소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또는 검사 음성 확인자로 참석 대상도 제한한 가운데 열렸다. 선수단에서는 종목별로 지도자와 선수 1명씩만 참석하도록 했다.

김 총리는 “스포츠 영웅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줬다.” 며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선사할 것으로 믿는다. 도쿄올림픽을 화해와 평화의 계기로 만들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주장은 5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빛나는 ‘사격 황제’ 진종오와 여자 배구 간판스타 김연경이 맡는다. 김연경은 수영 유망주 황선우와 개막식 기수로도 선정됐다.

김연경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준비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은 오는 23일 개막해 8월 8일까지 계속된다. 세계 205개국 1만 5,000여 선수가 33개 정식 종목에서 금메달 339개를 놓고 겨루는 가운데 한국은 29개 종목에 선수단 354명(선수 232명·임원 122명)을 파견해 금메달 7개 이상 획득을 노린다.

마지막에 활짝 웃은 류현진

최근 제구력 문제를 겪었던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2021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전반기 등판 마지막 경기에서 활짝 웃었다.

류현진은 7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앳 캠든 야즈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방문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5안타와 볼넷 2개를 내주고 1실점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이로써 류현진은 올 시즌 전반기를 8승 5패 평균자책점 3.56로 마쳤다.

평균자책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류현진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다. 류현진이 어깨 수술을 받았던 2015년과 재활 중 한 차례만 등판한 2016년을 제외하고, 올해보다 전반기 평균자책점이 높았던 건 2017년(4.21)뿐이다.

올해 류현진은 4월 평균자책점 2.60, 5월 2.64로 호투를 이어갔지만 6월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4.88로 주춤했다.

6, 7월에 고전하긴 했지만, 류현진은 여전히 토론토 에이스다. 이날 현재 전반기 팀 내 최다이자, 아메리칸리그 전체 10위인 98⅔이닝을 소화했다. 4월 말에 부상자 명단에 올랐지만 열흘 만에 돌아왔고, 이후에는 한 번도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았다.

토론토는 4경기를 더 치른 뒤, 올스타전 휴식기를 누린다. 후반기 첫 경기는 16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이다. 류현진은 최소한 8일을 쉬고서 마운드에 오른다. 6, 7월 난조를 겪었던 체인지업과 제구력을 가다듬을 시간도 벌었다.

초유의 무관중 올림픽이 열린다

▲ 사진=shuterstock

도쿄올림픽이 결국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8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올림픽위원회(IOC),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도쿄도 정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 5자 회의에서 긴급사태 선포가 결정된 도쿄 도내 경기장에 국내 관중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올림픽이 열리는 42개 경기장 대부분이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몰려 있다. 도쿄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기장의 관중 수용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실상 전 지역에서 무관중으로 대회가 치러지는 것이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5대 축인 IOC와 일본 정부 등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3월 해외 관중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먼저 발표했다. 이어 일본 내 거주민들만을 대상으로 경기장 수용 규모의 최대 50%, 또는 1만 명을 입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재논의에 들어간 끝에 결국 올림픽 개막을 보름 앞두고 국내 관중도 안 받기로 했다.

일본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퍼부어 올림픽을 준비했지만, 관광 수입에 이어 입장권 수입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1964년 이래 57년 만에 안방에서 다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0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순위 3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내건 일본 선수단의 사기에도 무관중 경기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쟁국과의 대결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누릴 기회가 무관중 정책으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태극전사들을 포함한 205개 참가국 선수들은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싸우게 됐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8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샤론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